

미래사회의 비전



어느덧 여름의 한복판으로 들어섰습니다.
통우연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밀레니엄을 외치며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장밋빛 꿈을 펼치던 시절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지금은 성장잠재력 하락, 임금상승 압력... 그리고 산업 재편 구조의 취약성 등으로 산업 전선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 선뜻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관망 중인 것이 요즘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디지털 멀티미디어 전송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국내 IT분야 기술을 세계 정점으로 이끌어낸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 기술 이후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찾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많은 새로운 첨단 기술 개발을 이루어낸 업적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더 넉넉한 미래 비전을 찾아내기에 정부, 산업체, 연구기관, 학계 등에서 끊임없는 고혈을 바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부를 창출해 내는 것만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지상과제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제이지만, 그렇게 명쾌한 답을 내놓을 수 없는 현실의 한계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산업기술 개발과 발전을 통하여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술개발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돈과 인력과 노력과 시간이 기술개발, 과학 발전에 투입되어 산업 기술로 열매를 맺어야만 지금 우리가 처한 침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노출돼 있는 국내 산업과 기업의 문제점도 기술 발전만이 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정책의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공계 육성정책에 힘을 기울여 온데 비하여 현장의 실정은 아직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IT 산업이 경제의 볼륨을 늘리고, 국부 창출을 견인하여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다는데 대하여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신위성 · 우주산업연구회 회원 여러분!

지금은 변화와 개혁의 시대입니다. 근자에 시대변화에 적응하여 쫓아가지 못하면 도태한다는 경구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발전적 변화는 항상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과 스스로에게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개혁해 나갈 것인가를 항상 자문하고 그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우리가 피부로 느끼며 감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기술 발전과 인간의 상상은 끝이 없으며, 상상은 곧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기심에서 비롯한 좋은 생각과 상상은 필요를 낳으며, 필요는 다시 기술을 낳고, 문명을 키워나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연구회 회지는 우리들의 상상이 현실로 이어지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호에서는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한미FTA 타결과 향후 전망'을 분석하는 정책이슈와 '전파 · 위성 및 우주개발 사업'을 주제로 하는 기획특집 등을 구성하여 동향과 현황을 분석하고 전망을 조명하는 기사와 논문을 올려 미래사회를 열어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지금의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현대 지성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격려하고 성원하고 지도편달 하여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회지 '위성통신과 우주산업'이 우리 연구회가 지향하는 첨단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그룹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나가는 열린 마당으로 거듭나기를 회원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행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

2007년 6월 일

사단법인 통신위성 · 우주산업연구회 회장 김 재 명